

buddhanews.com

#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차원과 삶과 모습이 주어집니다

## 25면에서 계속

치기 위해서 '손 좀 잡아다오' 하는 겁니다. 돌아 나니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이것을 이론으로만 알아서는 도저히 무(無)의 세계의 법도를 모르고, 무의 세계의 공법을 모르고, 무의 세계의 가고 올이 없는 도리를 모른단 얘 겁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가 없다는 얘 겁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기서 벌써 싸이 트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싸이 트어서 그 싸은, 예를 들어서 거기까지, 그 나무까지 목신하고 돌아 아니게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지요. 그러니까 내 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은 다 합일이 됐다는 얘 기요. 조복을 받았다는 얘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의 도리로, 이것을 손 잡는 도리로, 손이 있는 없 든 그대로 돌아 아니게 건질 수 있다는 얘기고 또, 배우는 도리입니다. 그게 두 번째 보리할 수 있는 도 리를 배우고 가는, 즉 말하자면 무의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너 귀신 방귀씨 얻었는 나? 얻었다면 내놔 봐라." 이렇게 말도 했을 겁니 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살아 있을 때, 생전에 이 공부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린 바깥보다, 지금, '지금 살아 있을 때 하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아닙니다. 이어 갑니다. 그래 자꾸 그것 을, 은산철벽을 정으로 쪼는 것처럼 자문자답하 면서 자꾸 뇌야 하겠소. 그리고 '너만이 네가 있 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잖아.' 하고, 저녁에 자 기 전이라도 15분이고 20분이고 그렇게 앉아서 단련을 하게끔 하는 것도 아주 필요합니다. 울지 않는 어린이에 젖 주는 법 없죠. 여러 예를 중에도 그냥 딱 악을 쓰고 우는 어린이를 얼른 안아서 젖 을 짜게 돼 있거든요.

어린들은 걱정하고 이러는데, 뱃속에 어린이가 들었을 때에 태가 있고 젖줄이 있습니다. 그 예는 자랄 때 젖줄을 잡고 자랍니다. 여러분도 그 주장 자가 바로 젖줄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젖줄 을 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요. 죽는 것이 죽 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으면서도 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 없이 그냥 공해서 돌 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할 때, 마음이 가니 까 손도 그냥 볼썽 가더라, 이러는 것처럼요. 그러 니까 손이 심부름하듯이, 몸은 물질세계에서는 표현하는 것이요. 표현을 할 때 쓰는 도구예요. 이 몸통이요. 진짜 마음은 좋고 나쁜 걸 가려서 딱 악 수를 하는데, 그 좋고 나쁜 것을 먼저 가려 놓으면 그 다음에 손이 가죠. 그러나 죽기보다도 삶은 것 은 어쩔 수가 없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 몸속에서, 내 몸으로 움 쭉거리는데 데서 모두 아셔야 합니다. 내가 나를 모 르고는 상태를 모르는데 상태를 모르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래서 육안으로 살던 사람들이 심안이 밝혀져야 하고, 심안이 밝혀서는 사람 들은 법안을 알아야 하고, 법안을 알아서 사는 사 람들은 또 지혜로운 눈을 가져야 하고, 그 뒤에는

부처님과 더불어 같이 불안으로서의 눈이 되어 된다는 얘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 올라가서 꼭대 기에 가서 보면은 심안이다 불안이다 육안이다, 이런 게 그냥 다 없어져 버립니다. 자유권으로서 자유스럽게, 육안으로 보려면 보고, 심안으로 보려면 보고 뭐, 맘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 때에 따라선 질문을 할 때에, 즉 정신세계의 무의 법이 닳았을 때, 이 심안의 스승이 자기를 인도할 때... 왜냐하면 '부 (父)와 자(子)가 상봉을 해야 한다' 이럴 때는, 즉 말하자면 부는 자기 조상입니다, 즉 자기입니다. 자기와 지금 현재의 자기가 돌아 아니게 상봉을 했다 할 때, 그것이 상봉을 해 가지고 고정되게 만 나고만 있으면 공법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 리가 그냥 평소에 생각을 하면 아버지, 즉 주인공 이 내 지금 마음으로 그냥 하나가 돼 줘요. 그리고 마음이 가만 있으면 이 자(子)가 그냥 거기에 한

가죠. 너도 나도 다 편리하게요. 그러니까 이 안에 서부터 모두 이렇게 발전이 돼서 내가 그 소리를 들게끔 되고, 바깥에서 하는 소리를 들게끔 되고, '손을 잡아 다오' 하는 소리를 들게끔 되고, 내가 손을 잡아 줄 수 있고 이런다면 손을 잡는 순간에 돌아 아니게 되고, 나를 거쳐서 내 그릇에 들어갔 다가 금방 거쳐서 그냥 화현이 되고...

천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난리가 나고 그랬 을 때, 만약에 길을 가다 오다 천도제를 지내 달라는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지내 줘야 올랐습니 까? 뭘 차려 놓고 그렇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이 도리를 알면은 그 자리에서 바닷물이라도 만들 수 있고, 또, 배가 고파하면 전부 배부르게 먹인다 이겁니다. 법공양으로. 그래서 천도를, '나' 를 거 쳐서 하게 되면 그냥 이런 잔소리가 필요없는 거 죠. '나' 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그냥 스쳐 가기만 해도 그건 천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

마음자리였다. 자신의 집착과 성공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놓는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 가 발생하느냐 하면요, 같은 직종에 있는 다른 분 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선원에 다니면서 직업에 대해서 좀 나태해졌다' 또는 '자기 하는 일에 열 심이 아니다' 이런 결과가 간혹 발생하는데 어떻 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스님 그건 마음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죠. 그 게 바깥으로 보입니까, 나태한 게? 하하하...

질문자(남) 그게 아니고요, 모든 직장이 평가 를 하게 됩니다. 일등 이등 삼등,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일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 많이 받아야 되고, 또 반 드시 기준에 일등 하는 사람을 누르고 자기가 일 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치하고...

스님 그래요. 그런데요, 일등을 하든 일등을 못 하든 그 소관이 주인한테 있어요. 마음에 있단 말

신(自神)을! '자신을 믿어라' 이런 겁니다. 없어서 '찾으라'는 게 아니라 '믿어라' 이런 겁니다. 본 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체가 없습니다. 공 정하게 합니다. 남을 해롭지 않게 공정하게, 자기 도 밭을 떨어지지 않게 공정하게 합니다. 그러니 까 그 자기 주인한테다 맡겨 놔라 이겁니다. 공정 하게 할 것을 믿고 말합니다.

즉 말하자면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하나로 인 해서 그 회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요량 있게 잘 하면 그 사람 하나로 인해서 다 살 수 있는 겁니 다. 그래, 적자만 나면 회사가 그 사람 하나가 거 기 들어가고 나서 흑자가 돼 버리니까 또 적자 나 는 회사로 보내고, 또 거기서 흑자가 나니까 또 적 자 나는 다른 회사로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 게 보물단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 소 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만 살펴보고 하는 게 아닙 니다. 이게, 그래서 공법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지혜롭게 생각이 안 나더라도 이 공부를 그냥 열심히, 젓줄을 믿고 그것만 쥐고 '너만이 먹여 살릴 수가 있고 너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하고 거기다 모든 걸, 일거수 일투족을 다 놓을 때 비로소... 우리가 약속하는 것만 봐도 알잖아. 손 하나가 마음에 따라서 움 쭉거리라는 거를 알게 되면 보는 거, 듣는 거, 몸 움쭉거리라는 거 다 마음에 따라서 움쭉거리라는 것 이라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부 름을 하되 그것은 보이지 않는 무에서 이렇게 공 정하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말로는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실 천을 보여 줄 수가 없어서 속은 다 빼놓고 이렇게 겉터겉이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천 하는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알게 돼 있는 거니까 난 지금 겉터겉이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손짓 발짓 해 가면서, 허허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산 산조각 내서 따지지 말고, 1, 2등을 따지지 말고 그냥, 1, 2등을 하는 것도, 모두 포함해서 살리는 것도, 나의 밥줄을 떨어뜨리는 것도, 떨어뜨리지 않는 것도 나한테 달려 있어, 이게 흑자가 나와 살 테니까... 하고선 그냥 물입을 해 들어가면 그건 누구든지, 생활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뭐 틀고 앉아서 누가 하라나? 일할 때나, 변소갈 때나, 또는 길을 걸을 때나, 앉았을 때나, 잤을 때나 그대로 하기 때문에 완성 이다, 입선이다, 행선이다, 또는 좌선이다 하는 게 따로 없다는 얘지요. 그게 전부 참선이 되는 거니 까요.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8년 8월 2일 범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am.org 나 한마음선원)에 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찾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믿어라!

### 진짜 믿는다면 한군데서 그 선생이 중생들을 이끌고 다 조복을 받는다

데 합쳐져 버리고요. 아버지로 하나가 돼 버린단 말입니다. 지금 부르는 건 이름입니다. 가만 있으면 그냥 아버 부처가 돼 버리고, 생각을 했다 하면 그 아버가 자식한테로 하나가 돼 가지고... 그러면 또 보현보살이 되죠. 그게 이름이요. '아, 내가 뭘 해야겠다. 이걸 해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일어 나게 되면 보현이 돼 줘요. 그냥 일시적으로 보현 이 돼 준단 말입니다. 부처다 법신이다 보현이다 따로 없이 그냥 부처, 문수가 보현이 돼 줘요. 그 냥, 하나가 돼 버려요. 하나가 되면 그대로 움직거 리게 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데에, 즉 '움쭉거리지 않고 움직거리'는 것과 '움쭉거리면서 움직거리'는 것과 이게 돌아 아니다' 하는 소리는, 약속하는 걸 봐 도 이게 동시에 떨어지는 거지, 마음이 가면 손도 그냥 동시에 가는 거니까 이게 모두가 돌아 아니 라는 겁니다. 무(無)의 법이 따로 있고 유(有)의 법 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있다는 것을 여 여 하게 알아야 한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어 가지 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만 법을 자유스럽게 들이고 내는 걸 알아야 한다. 그 리고 그 들이고 내는 자유로운, 그 자재로운 생각 이 그대로 법인 줄 알아야 한다. '법이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법으로 판단이 나지만, '공법이다' 이렇다면 판단이 나면서다 공해서 지혜롭게 돌아

나기 천도제가 따로 없죠. 그래서 물건을 쭉 차려 놓고 천도를 하면 점점 덧대다가 붙어서, 그 습이 그냥 떨어지지 않아서 조상들을 영 천도를 할 수 가 없어요. 불종자로 만들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모 두 불종자는 불종자인데 불성의 자리에서 싸이 나게 할 수 없단 얘지요.

질문자(남) 심인회 총무입니다. 이 자리에 앉 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생활 속의 불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스 님이 이미 좀 얘기 하셨는데요, 그래도 또 하겠습 니다.

생활과 불법이 따로 있지 않고 또 마음공부와 생활이 따로 있지 않는데, 사실은 개인적인 가정 일이나 일상적인 일은 마음공부 하기가 쉬운데 요, 우리가 먹고 자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직업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와서 직업이 갖는 가장 큰 특징으로 경제의 논리와 경쟁의 논리가 있습니다. 첫번째, 경제의 논리는 조금 노력하고 많이 받아 가는 것 이고요, 두번째, 경쟁의 논리는 남을 내가 꼭 이겨 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두 가지를 잘해야 자 기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도 잘하는 사람이고 그 리고 하는 일도 잘한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와 네가 없고 너와 내가 없는 그 본래의

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마음이 가니까 손이 갖지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손이 갈 수 있느냐?" 그 런 겁니다. 그러니까 택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약속만 하면 되니까. 그러 니까 한 사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되 함 이 없는 것이다 이거요. 즉 말하자면 마음이 한 일 이지 그 펜대를 왼 손이 한 게 아니란 얘지요.

질문자(남) 그러면요, 차후에 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 선원 식구 중에서 대통령이 나 올 수도 있고 또 위대한 어떤 인물도 나올 수 있 어서, 물론 저는 우리 선원이 안양에 있고 우리 지 원들이 좀 허름한 데 있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원이 때에 따라서 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또 나라의 대통령도 공 부도 같이 시키고, 이룰 수 있는 날이 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허허하... 그거는 사람마다 다 자기 근 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 학으로, 경을 배 우는 학생들이나 그 제자들은 많지만 선 제자들 은 드뭅니다. 선방에 가서도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고 관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먼 회두를 잡 고 간혹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그 런데 우리가 볼 때에 '선이다' 하는 것도 이름일 뿐이니, '자기 자신을 알라' 하는 겁니다. 자기 자

## 21세기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이 쓰신 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들에게 선을 보입니다.

- 이 책은 한글만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으므로 불자님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입니다.
- 해조(解祖) 범산(梵山)큰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佛山 佛壽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흥종 경남총무원장, 중앙총회위원 역
- 원해동불교대학 대학원교수
- 원흥종불교대학 객원교수
- 한여래암 주지
-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원사불교의 선정사상에 대한 연구
- Buddhism과 인도철학과 제학파의 비교 연구
- 공사상에 대한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범인에 관한 고찰 등
- [저서]
- 그 속에 깊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저 국역상용법요집 외 전문분야 다수

**신간**

**21C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차례]

- 제 1장-기본학습
- 제 2장-중요경전
- 제 3장-불공법
- 제 4장-진언과 다라니
- 제 5장-각종발원문
- 제 6장-기도제법습기
- 제 7장-불서출판수지공덕
- 제 8장-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 제 9장-자가기도법
- 제 10장-불교기초지식
- 제 11장-권선문

- ◆택배발송 (발송비 무료) ◆정가 30,000원
- ◆문의 : 055-761-7462 / 011-552-3222
- ◆계좌번호 : 농협 801032-51-032261
-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여래암)
- 홈페이지 www.yeraeam.com / cafe.daum.net/yeraeam

## 미국현지영어연수안내

미국 현지에서 영어연수를 희망하시는 불제자에게서는 미국 전문 영어연수 학원인 "Spider smart" (미국전역 9개학원개설)의 Sugar Land, Texas 소재 "Learning Center" 학원장으로 있는 불자 김영주(미국 MIT, MBA석사)에게 아래 연락처로 문의 하시면 현지 영어연수에 유익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 TEL : 1-281-491-8896, 1-281-253-2798  
H.P : 1-832-264-1045  
E-mail : Spidersmartyk@yahoo.com

**참고사항**  
위 학원에서 배포한 Teaching Success Cat, Spidersmart year round program, How to teach at Spidersmart, 등 자료를 원하시는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 연락처 : 019-367-4307, 019-322-4308

## 중앙불교대학원

### 학인(승려·행자) 모집

- ◆모집학과: 사미과 6개월 과정
- ◆원수접수: 2008년 8월 29일까지
- ◆개강일시: 2008년 9월 1일(월요일)
- ◆자격요건: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
- ◆제출서류: 입학원서, 주민등록초본, 사진, 자기소개서
- ◆특 전:
- ◇ 1차 3개월간 숙식하며 습의 등 기본교육 실시
- ◇ 2차 3개월간 통신강의와 월 1회 특강실시 단, 본인의 사정 때문에 통신강좌만 이수하는 자를 위해 월회 입학교육 실시
- ◇ 6개월 과정 이수 후 심시를 거쳐 사미(니)계 수계
- ◇ 사미(니)계 수계후 6개월간 통신교육 및 특강 이수하여 자격심사를 거친자 비구(니)계 수계토록하며, 사찰(포교원) 창건시 여법히 법회를 봉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 통신강좌를 이수한 재가자의 경우 포교사(법사)자격 수여
- ◇ 전과정 졸업 후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지속됨
- ◆문의 처: 본대학 사무국 031)676-0908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중앙불교대학원**

## 한국불교여래종

### 입종안내

사찰등록 및 여래종에 입종하여 여래의 사도(스승)로서 포교 및 전도를 함께할 종도·문도를 환영합니다.

◆사찰등록 및 입종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사진(여권용) 4매
3. 사찰전경 및 법당내부 촬영사진 각 1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

### 행자(남,여) 모집

불교교학 연구및 수행을 통하여 포교및 전도의 뜻을 둔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본산 대역사사**  
전화 043)731-2261 / 043)731-6454  
팩스 043)731-6453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71  
(정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강 건너)